

사이버폭력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



사이버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10원칙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사이버공간에서 타인도 자신과 같이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요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올바르게 이야기 해요

① 고운말 바른말 사용하기 ② 거짓된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올리지 않기 ③ 글을 쓰고 여러번 읽어보고 올리기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타인으로부터 오해나 불신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사이버폭력! 정확히 이해해요!

사이버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주 이야기 해요!

평소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는다.

정확히 도움을 요청해요!

사이버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와 선생님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준다.

처음부터 정확히 대처해요!

① 분명한 거부 의사 표현하기 ② 보복하지 않기 ③ 무시하거나 차단하기

사이버폭력의 증거! 지우지 않아요!

자신을 비난하거나 욕설 등의 메시지를 받은 경우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내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①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관련기관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받는다.
② 사이트 관리자에게 사이버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한다.

우리의 사이버폭력 고민상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전화 신고/상담 서비스

온라인 신고/상담서비스 에듀넷(도란도란)

www.edunet.net
www.dorandoran.go.kr
도란도란
학교별 학교폭력 익명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익명, 비밀)

에듀넷

www.edunet.net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제공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 1388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비밀상담, 실시간 채팅 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82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 신고/상담서비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 117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상담/신고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SOS 지원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sos ☎ 1588-9128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스마트심 센터(인터넷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 1599-0075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 제공(게시판, 메신저 등)

스마트 정보문화 포털

http://www.digitalculture.or.kr/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문자 상담/신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0117
경찰청 안전Dream m.safe182.go.kr

모바일앱

117Chat(학교폭력 신고센터, 채팅상담 등 제공)
스마트 안심드림(사이버폭력 감지시스템)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사이버문화 우리함께 지켜요

-사이버 폭력 예방·대응 학생가이드-



사이버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 ▶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
- ▶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 ▶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판매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은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왕따)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 폐쇄집단 공격: 왕따 친구를 카톡으로 초대해 단체로 욕설과 조롱함
- ▶ 카톡강요: 카톡방을 나가더라도 계속 카톡방에 초대해 카톡방에 가든 후 조롱과 욕설을 함
- ▶ 와이파이 셔틀(무선데이터 갈취), 핫스 셔틀(아이템 갈취) 등

사이버폭력 왜 무서운 것일까요?

사이버폭력은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보지않고 자신을 숨긴채 사이버폭력에 가담할 수 있어요.

사이버공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나 허위사실 등이
빠르고 쉽게 복제되어 퍼져나가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어요.

사이버상에 노출된 사이버폭력의 내용은 삭제가 어려워
평생 기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어요.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날 수있어요.

함께 맞춰보세요



사이버폭력은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사이버폭력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집단적인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친구의 굴욕사진 등을 장난으로
SNS에 게시하는 것은 사이버폭력이다.

비록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공개된 공간에서 올린 글이나 이미지 등으로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이다.



온라인 게시물은 실제 때리는 것과는 달리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것이다.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내가 남긴 글을 지웠다고 해도 다른 곳에 남아있을 수 있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사이버폭력일까요?

중학교 2학년이던 이 군은 같은 반 대부분의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장난'을 빙자한 아이들의 폭력도 수시로 이뤄졌다.
그 중심에는 김아무개(15, 가명) 군이 있었다.
견디지 못한 이 군은 지난 4월 학교와 경찰에 이를 알렸다.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리고 이 군의 따돌림을 주도했던 김 군에게는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전학을 간 김 군은 끊임없이 이 군에게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욕설과 함께 "나만 너를 따돌렸냐?" "나만 때렸냐?"
"내가 여기 전학와서 왕따당하면 니가 책임질 거냐?" 등의 메시지가 수백통씩 쏟아졌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왜 대답을 안하냐" "내가 우습냐. 내가 전학왔다고 우리가 만나지 않을 것 같냐" 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친구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낯선 아이디로 문자가 왔다. 김 군이었다.
김 군은 친구의 이름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혹은 탈퇴 후 아이디를 바꾼 뒤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을 스마트폰에서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 자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수백통씩 쏟아지는 김 군의 문자는 두 달 동안 이어졌다.

폭력의 형태를 교묘히 숨긴 사이버 스토킹

위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스토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A는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B를 만나게 되었다.
애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B의 제안에 A는 호기심 반으로 승낙하였다.
그 후 B는 A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A는 B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폰카메라로 자신의 전라사진을 10여장 보내주었다.
그러다 학교생활에 바빠진 A가 B를 점차 잊고 B의 쪽지를 무시하자,
B는 A에게 알몸 사진을 더 찍어주지 않으면 그 전에 받았던 A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사진을 요구했다.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이버성폭력

위의 사례는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